

오병탁 개인전

OH BYUNG-TAK

점령하다

2022. 9.14-9.27

Gallery175

K ARTS 175



<5/7/9> 2022, Oil on canvas, 81x117cm

《오병탁 x 김동규의 주고받은 글》

2022. 6. 26.

선생님, 오병탁입니다.

제가 먼저 메일 보내기로 했었죠?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이전에 써왔던 글 몇개를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첨부한 작업노트 중 2021년 10월에 쓴 글은 졸업심사에 제출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4월에 쓴 글이에요. 우선 이 정도로 메일을 시작할게요.

1. 나의 일상이 변하면서 기존의 것을 지워내고 새로운 것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지워내고 지워 내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른다. 당장 내 안에 꽉 막혀 답답했던 그 무언가를 드러내든 걸어내든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되면 되게 하라' 무식한 구호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흰 바탕에 그리는 쪽쪽 군대 그려왔다. 내 몸은 군(軍)을 떠났지만 온전히 벗어난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없었다. 지워내고 털어내고 싶었다. 빠르게. 방법을 모른다. 머릿속에 가득했던 군인의 패턴은 사라졌지만 체득한 기억의 잔상이 흔적처럼, 파편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못하고 난감하고 복잡하게 섞여있는 상태로 여겨졌다. 어떻게 지워낼 것인가? 무식하게 무모하게 지워내고자 했다. 지워낼 수 없다면 덮어버려야지. 흰 종이감지가 되도록 덮어나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스치듯 지나가는 모든 것을 포획했다. 방법을 모르기에 간절했고, 무모함이 나를 앞섰다. 집, 집안에 있는 사물, 한 쪽 귀가 살짝 걸려나간 길고양이, 유리창에 부딪쳐 쓰러진 새, 열집에서 넘어온 병클, 유튜브 채널이 듣는 뉴스 그리고 가족... 모든 것이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다. 정확하게 자극적인 마찰이었다. 전역 후, 뉴스로 세상을 알아갔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느껴졌다. 자식이 눈에 들어오고, 집 안 구석구석 담연하게 놓여있는 사물들의 존재가 피부로 느껴졌다. 군대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니 익숙 하리라 단정 짓던 존재들이 가장 새롭게 변모했다. 세상에 실재하고 나에게 밀접했지만 경직되어 있었을 뿐 허상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초기 캔버스 작업을 바라보면, 한 겨울 붓을 든 손을 이렇게 만든 추위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실재감이, 그로 인해 작정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초록색만 봐도 떠오르는 군대의 기억 때문에 짜증 섞인 혼잣말을 저절로 내뱉으면서 캔버스에 덧칠한 물감은 국방색이 되어 있다. 과거에 질질 끌려 다니는 듯해서 싫었지만 당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방식이었다. 이게 '나'구나.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내가 하나의 캔버스에서 계속

충돌했다. 캔버스 하나를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 전투같았다. 되돌아보면 그 당시 캔버스 작업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군대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덮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드로잉을 500장 그렸을 무렵, 한 공간에 드로잉 전체를 펼쳐본 적이 있다. 그때 사열대의 모습이 떠올랐다. 개별 드로잉 작업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져 거대한 덩어리를 이뤘다. 그 시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느꼈다. 이후, 시기별 드로잉들을 추적하고 편집해 캔버스작업과 연계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 그토록 지워내고 싶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작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2021년 10월

2. 그림들이 바닥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사열대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떠올랐을까. 언제부터인가 한 공간을 점령한 그림들을 상상하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날 사열대에서 내려다본 병사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역할은 병사들의 사소한 생활습관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며, 이것은 강력한 통솔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나 자신을 포함해 시간이 지날수록 개개인의 특성은 퇴색되고 하나의 국방색 무늬로 인식되어 갔다. 조직에 귀속된 커다란 생명체가 되어 목격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게 개인의 속성은 지워져버리고 하나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통일된 형식이 자아 내는 강력한 힘 혹은 그 힘 너머에 당장 설명할 수는 없는 묘한 지점을 생각한다. 내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 그 풍경은 무엇일까.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았기에 펼쳐진 그림과 마주했을 때 그 풍경이 떠올랐을까. 병사들을 지휘하며 도취된 권위감의 존재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새겨진 두려움일까. 묘한 긴장감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면 초조해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풍경을 잊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전역 이후, 그려진 그림을 통해 다시금 그 풍경을 마주했다. 이제는 마주한 풍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한다. 전체를 보기 위해 하나를 살살이 살피고, 하나를 보기 위해 전체를 구성한다. 더불어 전체와 하나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소집단에 주목한다. '전체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림 한 장이 건네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집단화된 그림들이 잃는 것과 얻는 것은 무엇인지 살핀다. 내가 그린 그림들이 만들어낸 풍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되묻는다.

2022년 4월

2022. 7. 1.

병탁 작가님.

끔찍하게 덤벼요. 피부가 끈적끈적. 개구리같은 상태로 하루종일 의자 위에 둘러붙어있었어요. 작업실은 안 더워요? 조만간 가봐야하는데...



<50P> 2022, Oil on canvas, 364x584cm, Variable installation

보내주신 작업노트와 기록 이미지들 잘 보았습니다. 뭐랄까 구도자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자가 불심을 수행하듯, 오병탁이라는 화가는 회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 작품에 담기는 내용이나 작품에서 보여지는 호형적 특질이 아닌, 대체 내가 무엇을 해오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가노트들이라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창작 과정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쓰이는 용어들이 흥미롭네요. '강력한 통솔력', '조직에 귀속', '공간을 점령', '통제', '전투' 등. 직업군인으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병탁님에게 있어 큰 원체함이 되었나봐요.

저는 원주에서 사병으로 군생활을 했어요. 키가 커서 의장대 갔죠. 의장대 아시죠? 키 큰 애들이 번쩍번쩍 멋있는 군복 입고, 큰 깃발이나 총을 휘둘러 돌리는, 그런 부대에요. 칼같이 각을 맞춘 움직임으로 의전행사 하는 부대. 행사 부대다 보니까 군기가 엄청 강했어요. 이등병때는 밥먹듯이 맞았죠. 복도 걸어가다가 눈 마주쳤다고 관자놀이에 주먹이 날아올 정도니 말 다했죠. 아. 물론 저는 한 번도 후임들 때린 적 없어요. 가능한 한 친구처럼 지내려 했거든요. 말년에는 주말마다 면회실 뒷구멍을 통해서 산 소주나 막걸리를 후임들 수통에 보급해줬죠 ㅋㅋㅋㅋㅋㅋ. 문제된 적은 없어요. 내 선임들의 '가혹행위'도, 나의 '알콜보급'도 전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죠. 간부들을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것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부들일수록 더 속이기가 쉽죠. 통제된듯한 장면을 '연출'하면 되거든요. 안그래도 키가 비슷한 애들을 모아놓은 부대니까,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줄 맞춰서 왼발 오른발 착착 걸기만 해도 꽤 그럴싸해보인답니다.

그러므로, 크기와 가로세로 비율이 같은 화지에 그린 그림들을 오와 열을 맞추어 나열해놓는 연출이 그 자체로 어떤 통제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미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 병탁 작가님은 창작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회화적)사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나요? 매 그림마다 반복되는 작업의 프로세스라던지 '그리기'의 구체적인 특질들이 있나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가혹행위'나 '알콜보급'같이, 그림들이 저항하기도 하나요?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림, 답신 기다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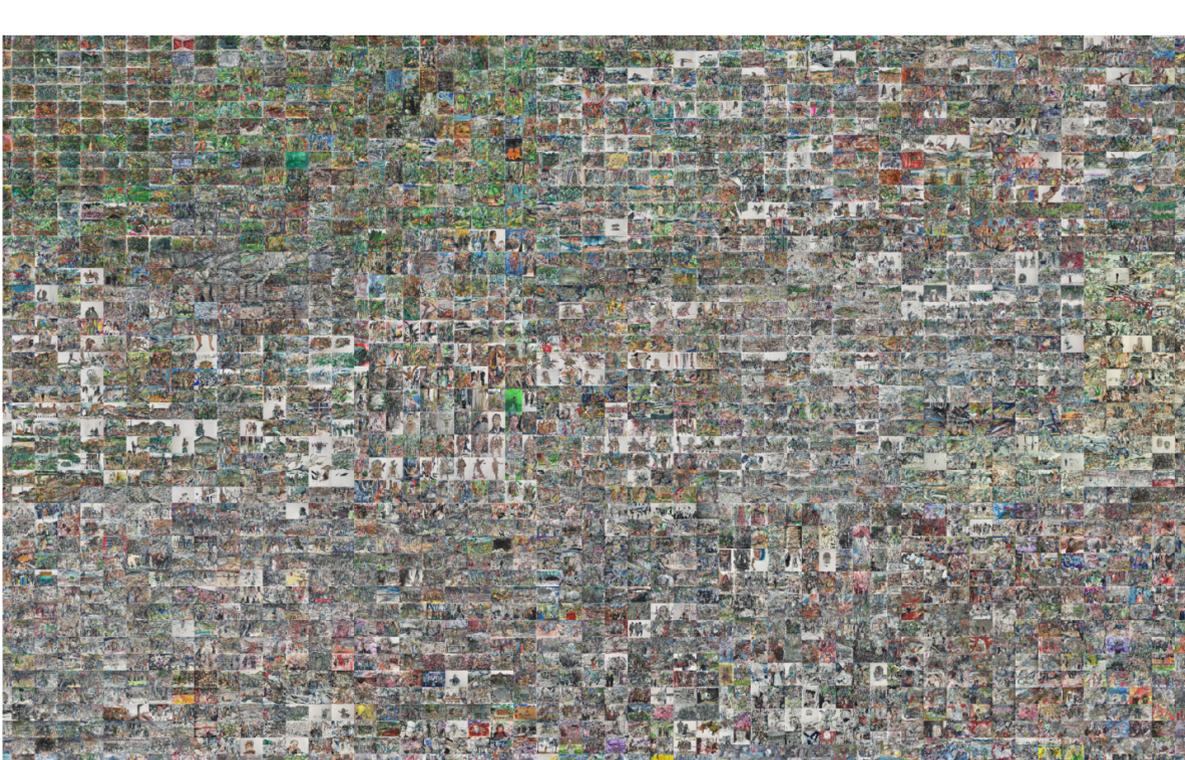
2022. 7. 4

요몇일 비가 계속오다가 잠깐 비가 멈춘 사이에 작업장 주변에 자라난 풀들을 뽑았어요. 비가 오고난 뒤에 풀들이 자라나는 기세를 보고 있다면 작업장을 곧 걷어 삼킬 듯해서요. 작업장 안에 자라난 풀들을 뽑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생명들이 자리 잡고 있는걸 보게 되죠. 아이 주먹만 한 개구리가 서랍장 아래 구석에 웅크려 있고, 거미들은 구석구석 거미줄을 치고 있고. 벌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벌집이 두 세군데 만들어져 있더군요. 평상시에는 내버려 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전부 제거해야 직성이 풀려요. 하지만 조만간 다시 자리를 잡아 가겠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군대 관련 추억담은 재미있게 읽었어요. 강력한 통제 아래 운영되는 군대에서도 의도치 않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죠. 아무리 뽑아내고 걷어내도 다시 자리를 잡는 생명들처럼요. 제게 군대의 기억은 요즘처럼, 긴 장마철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습습함과 끈적거림. 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흙뽕이 발에 붙어서 조금씩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죠. 군대를 다녀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더군요. 대부분 자원에서 들어온 경우가 없다보니 부정적인 기억만 가득한 공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어떻게든 임무를 수행해낸다는 것이 저에게는 흥미로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연출'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임무를 그럴싸하게 수행해내죠.

저는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화폭에 그림을 담아내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한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의도를 달성하려 한다는 측면에서도요. 군에서 훈련하듯, 제한된 상황을 설정하고 때마다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던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림이 제작되는 과정에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더군요. 선생님 질문도 이런 맥락에서 하신 거라 생각되네요. 답변 드릴게요.

첫째, 저는 드로잉과 캔버스 작업을 병행해요. 드로잉 작업은 정밀의 결과물이고, 캔버스 작업은 드로잉이 창출된 결과물에 속해요. 풀자면 정밀은 요건만 충족하면 집단에 귀속시켜 놓는 행위를 뜻하는데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죠. 즉 드로잉 작업은 포착된 모든 것을 무작위로 그려 넣은 단순한 결과물에 해당하죠. 차출은 임무가 주어졌고 해당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 드로잉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해요. 제 작업은 징집하고 차출하는 과정이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매 순간 통제를 가하는 행위자의 관점보다 통제된 상태 즉 체계 자체를 구축하고자 했어요. 둘째, '가혹행위'나 '알콜보급'이 간부의 눈을 피한 '저항'이라고 말씀하셨고, 통제를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돌발행동을 저항'이라 여기고 믿는 것' 자체가 정확히 통제받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저항한다고 믿고 행동하지만 결국엔 해당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저항은 진짜 저항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조직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제가 구축한 작업 체계에서 저항 세력(?)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찌보면 그런 저항은 제 그림을 보는 관람객의 시선이 될 수는 있겠네요. 제한 사항을 설정하고 구축된 프로세스에 따라 제작하고, 전시를 수행했다면 제 역할과 권한은 거기까지. 전시를 보고 해석하기에 따라 각각각 색일 수 있는데, 개인적 견해는 제가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2022. 7. 8

와 재밌네요! 얼른 가서 차출된 친구들의 임무 수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집니다만, 팔월 말 즈음 가기로 했으니, 꼭 참고 군복을 조금 더 지퍼 보도록 하죠.

군부대 내의 가혹행위나 알콜섭취 같은 돌발행동의 주제들, 그러니까 '사병'들 입장에서 그런 돌발행동의 목적이 '저항'은 아닐 거예요. 그냥 돌발적으로 패고 싶으니 패고 마시고 싶으니 마시는 거겠죠. 대한민국의 군기문란을 목표로 위장입대(?)한 적국의 스파이가 아닌 바에야, '저항해주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 자라듯, 벌이 겁 갖듯, 개구리가 펴떡이듯, 자연스레 개개인의 욕망이 발휘되는 거죠. 근대 문제는, 군부대 내에서는 그 욕망들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제의 주제, 그러니까 지휘관 입장에서 그 행동들은 규율과 원칙에 저항하는 사건/사고일 수 있어요. 요는, 사병들은 규율과 원칙으로 프로 그래밍 된 무결점의 객체가 아니라 돌발행동의 가능성이 내재된 결점 투성이

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은 다양한 언어적,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사병들을 통제해야하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회화의 과정을 '통제'한다는 감각으로 병탁 작가님이 작업을 하고 있다면, 대체 어떤 회화적 돌발사건이 제한/제약되고 있는 걸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제약들이 결국 병탁 작가님 작업의 조형적 특질을 결정하는 것인가? 하는 가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근대 만악에도, 지난 번 메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원천적으로 저항이란 게 없다면, '통제'를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병탁님이 작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통제'라는 개념이 다소 수사적으로 과장된 어휘는 아닌가요?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양의 작은 드로잉 작업들 중 몇몇을 선택해서 큰 회화로 옮기는 식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이고도 효율적인 작업 프로세스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그 절차를 '징집', '차출', '임무수행' 등의 어휘로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언뜻 동일한 작업패턴으로 보이는데, 병탁 작가님만이 그런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 출신이고, 그런 어휘가 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 그런 어휘가 사용되어야할 작업 내적인 필연성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가설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자면, 혹시 그림을 그릴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구체적인 규율 혹은 원칙이랄 것 이 있을까요?

지난 번 메일에서 또 한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징집된 드로잉들 중 몇몇을 차출하여 '임무를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들리요. 예컨대 군대는 '국가를 지킨다'는 임무를 위해 병사를 징집하고 차출하여 통제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병탁님이 차출한 회화작업들에 병탁님이 부여하는 임무는 어떤 것인가요? 그 임무의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2022. 7. 17

바로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제가 '징집-차출-임무수행'이란 어휘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나 의미가 제가 그림에 접근하는 태도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비슷한 어휘로



<25/1490/979> 2021-2022, Oil on canvas, 81x117cm



<000025> 2019, watercolor on paper, 20x27cm



<000979> 2020, watercolor on paper, 20x27cm



<001490> 2020, watercolor on paper, 20x27cm

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을 굴리는 과정상 드러내는 태도 그 자체가 재현하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즉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그림들은 가시적인 결과물일 뿐이고요. 저한테는 극명한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데 선생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막상 글로 풀려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사적인 표현만 무무하고 구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전 이 세상에 그림이 되지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태도로 드로잉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막 그려놔요. 마치 무한대로 증식하는 생명체와 유사하게 드로잉들이 쌓여가는 양적확장에만 관심 있어요.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의 존재 이유는 캔버스 작업의 유일한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이후 임무 달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데, 드로잉들 중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이렇다면 순간하겠다 싶은 애들로 고르는 거죠. 목적을 위한 임시 조직으로, 임무가 끝나면 해체하고 또다른 임무를 수행하는거죠. 그렇다보니 차출되는 애들은 계속 뽑히고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될까봐 내심 걱정도 되네요. 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이때 '부여된 임무'의 포인트는 임무가 '무엇'인지 보다 '부여한다'에 있어요. 임무라는 게 조직이나 체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튜니바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그 지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무엇을 제한하는지 물으셨죠. 음... 참 풀이내기 애매한데요. 캔버스 작업은 여러 드로잉들을 설정한 프레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두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한되고 통제 되요.

정리하면 통제한다는 건 결국 지워내는 행위와 같아요. 개별 드로잉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지워내는 과정이죠. 조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선 불가피한 것이죠.

드로잉을 보고 그림을 그리다보면, 실제로 개별 드로잉이 가진 특징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제가 설정한 임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요. 지운다는 건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죠. 지우는 방식은 여러 있는데, 그 중 오와 열을 맞춰 나열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방식 또한 지워내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2022.8.18

오병탁 작가의 작업실은 양평군 개군면. 산골짜기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인지라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가야 했다. 며칠 전부터 미친듯이 쏟아지던 비는 자동차의 온 몸을 두드러대고 있다. 차 앞유리를 발작하듯 닦아내는 와이퍼의 허리가 오도독, 부러져버리는 게 아닌가 심을 정도였다. 전국은 물난리. 아녜게 아니라 도로 옆을 나란히 달리는 남한강의 수위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었고 강 표면은 온갖에서 쓸려나온 쓰레기들로 코팅되다시피 덮여있었으며 그 쓰레기 위로 또 비가 퍼붓고 있다. 이런 말 외람되지만 참으로 장관이었다. 남한강을 뒤로하고 산길로 들어서니, 이번엔 도로 위로 산사태가 나왔다. 산이 평평하게 쏟아진 풀, 난생 처음 보았다. 낙석으로 깨져나간 아스팔트 아래로 흙바닥이 보이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낸 채 드러누웠다.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땅 위로 넓게 펼쳐진 저 산을 수습하느라 분주하고 폭우는 역시나 야랑곳없이 그네들의 정수리를 두드린다. '그래, 다 해라 다 해!', 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차를 달리다보니 오병탁 작가의 작업실. 문 두드리니 세상 태평한 얼굴로 맞이한다.

*

냉수 한 잔 마시고, 한쪽 벽에 도열해있는 페인팅들을 들여다본다. 작가는 조심스레 작품들의 첫 인상을 묻고, 나는 '무섭다' 대답했다. 그것이 적절할 표현이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무서움'보다는 '무기력함'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엉망진창으로 얼어지고 겹쳐지고 까뒤집어지고 것똥개진, 사연을 추적할 길이 없는 병행 현상 앞에 서있는 삼류 사설 탐정이 느낄 법한 속수무책의 무기력함이랄까. 탐정이 무기력한 이유는, 눈 앞의 (시각적) 근거들 속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면 좌상단의 붉은 붓터치들과 그 하단의 물글물글한 표면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화면 중앙의 다급한 필치와 그 우측의 길잡이 미묘하게 겹쳐져야 하는 이유를 추측할 수 없다.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시간 위로 얹어지고 그 시간은 또다른 공간 아래 파묻힌다. 모든 사건이 모든 사건 위로 겹쳐지며 그 특이성을 상실해간다. 그것은, 캔버스 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산사태, 혹은 모의(模擬) 물난리와도 같다. 흙바닥이라는 특이점을 뒤덮고 있는 아스팔트라는 특이점을 낙석이라는 특이점이 때려부순다. 낙석이라는 특이점을 치워버리는 일에 골몰해있는 공무원이라는 특이점의 특이한 머리통을 폭우라는 특이점이 적셔갈 때, 그의 그림은 예외없이 무자비하고 무차별하게 그 이후에 도래할 레이어에 뒤덮힐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이 화가가 다급함과 정교함으로 자아내는 질서정연한 무질서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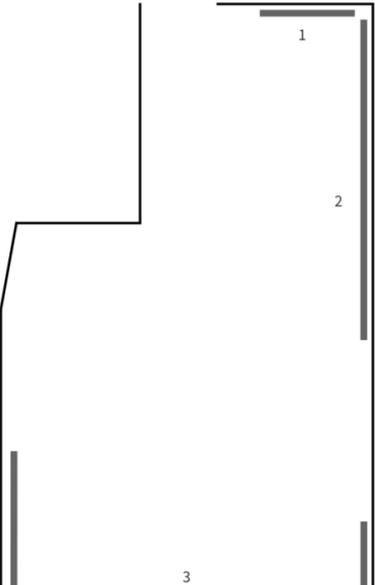
*

서울로 돌아가는 길, 양평에 올 때와 반대편에서 바라본 산사태와 물난리의 풍경은 묘하게 한적하고 평평해보였다. 그런 풍경을 느릿한 눈으로 훑어보다 보니 문득, 왜 그의 그림이 무서워보였는지 알 것 같기도 했다. 그의 그림에는, 나같은 건 저금 죽어도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상투적이고도 건조하기 짝이 없는 진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난 쉽게 죽을 생각이 없지만 말이다.

세계와 회화가 일으키는 화학반응에는 확실히 좀 기묘한 데가 있다.

오병탁

1986년에 태어나 인화대학교 미술과(2005-2012년)를 졸업했다. 졸업 후 육군 장교(2012-2019년)로 복무했고, 전역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2020-2022년)를 졸업했다. 이번 전시는 나의 첫 개인전이다.



- <80P> 2022, Oil on canvas, 291 × 145.5cm
- <30F> 2022, Oil on canvas, 291 × 455cm
- <50P> 2022, Oil on canvas, 240.9 × 819cm



<1380/605/152> 2021-2022, Oil on canvas, 97x145.5cm



<2928/2724/1112> 2021-2022, Oil on canvas, 97x145.5cm

175 GALLERY	정와대	사무비아다방 재해문로 140
	영인시장입구 갤러리175 [사주황정서 종로구 재해문로 55 5호]	
재해문로 51	영인시장입구 갤러리175	재해문로 105
사직단	경복궁역 2번 출구	광화문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갤러리17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53 2층

관람문의
02-720-9282

instagram. drawingtak
e-mail. zzim486n@gmail.com